



비대면 강의의 한계점이 하나둘 해결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의 비대면 강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한진석 기자)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교육방법은 보편화될 수 있을까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까워지면서, 코로나19 위기 종식 이후에 대학가의 풍경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비대면 교육 체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대면 수업이 대학 강의의 주축을 이루었던 만큼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에는 동일한 모습으로 회귀할 것이란 견해가 있는 한편, 비대면 교육의 이점들을 융합해 새로운 형태의 교육으로 변화하리란 기대도 존재한다. 교육 환경의 변화와 방향성의 전환이 현 상황과 고등 교육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대면 수업, 새로운 강의 형태로 자리 잡을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현장 중심 강의뿐 아니라 비대면 강의의 이점을 융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교육계의 일반적인 의견으로 보인다. 지난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최된 “2020 GSI 포럼”에서, 미네르바스쿨의 벤 넬슨 총장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대학이 이전의 모습 그대로 회귀할 수는 없을 것”이라 예견한 바 있다. 현장 중심의 강의에 묻혀 부각되지 못했던 온라인 강의의 강점이 비대면 교육을 통해 강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우리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디지털러닝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소희 교수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업은 우리학교 구성원들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고,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접목하기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면서, “현재의 코로나 위기가 종식된 이후에도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혼합된 융통성 있는 수업이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비대면 강의 체제에서 가장 우려되었던 교수자-학습자 간의 소통 문제가 생각보다 원활히 해결되면서, 비대면 강의의 강점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2020년 연세대학교 교

육연구소에서 펴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교육 질 제고 방안 연구’는 “대학교육에 있어서 대면-비대면 병행 수업이 수업방식의 새로운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는 동시에, 학생들의 강의평가를 통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심층면접을 통해 “온라인 강의가 질문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라고 답하거나, “교수자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가 수월했다”는 의견을 전했다. “온라인 수업에서의 상호작용이 어떠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다른 평가 항목에 비해 높은 결과값(4점 만점에 2.79~3.09점의 평균값)이 도출되었다.

비대면 강의, 기존 온라인 강의와 차별화해야

다만 대학에서 비대면 강의를 수업 진행 방식의 한 축으로 삼더라도, 사이버대학 및 MOOC의 온라인 강의와는 차별점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희사이버대학교와 우리학교 학생들이 함께 수강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환문명’ 강의를 맡은 강윤주 교수(경희사이버대학 문화예술경영학과)는 “비대면 방식 강의 진행이 구성원들 사이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는 만큼,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강의는 대학의 한 축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현재의 비대면

강의는 현장의 강의를 그대로 옮겨온 형태이므로, 개발된 플랫폼에 다양한 자료 및 기술을 접목해 개선된 방식의 강의를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는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완전한 대면강의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함과 동시에, 비대면 강의 플랫폼인 ‘와이에드넷’에 앞으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강의를 업로드할 것이라며 향후 강의 체계의 변화를 밝힌 바 있다. 또한 해당 강의 플랫폼에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을 접목하겠다는 새로운 강의 방식도 제시했다. 학생들의 모의 주식투자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가상현실 기술을 해부학과 접목하는 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다. 와이에드넷은 9개 대학과 강의를 공유하며 학사 교류의 활성화를 준비하는 등 비대면 플랫폼 활용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김 교수는 향후 비대면 플랫폼의 활용 계획에 대해 “우리학교가 개발한 비대면 플랫폼 e-campus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급박하게 도입돼 계속해서 보완의 과정에 있다”면서, “비대면 실시간 수업과 전자출결 시스템, 접근성 개선 등이 이루어졌고 학생들의 변화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도 확충 중이다”라고 밝혔다.

강의 환경이 달라져 구성원들의 지역적 한계가 사라지면서, 교육 콘텐츠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교육의 수요자층인

학생들이 지역적인 한계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강의에서 다루는 문제 역시 국경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등 교육 기관은 현대의 기술을 반영해 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할 것을 사회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온라인 강의를 선도해온 것으로 유명한 미네르바 스쿨은, 단순히 강의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름을 알린 교육기관은 아니다. 미네르바 스쿨은 강의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만 세계 도시 7곳을 학년마다 이동하게 하고, 그 도시의 문제를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통해 부딪쳐보는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다. 학생들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현지의 다양성을 익히고, 현지 기관과 협력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콘텐츠의 변화도 시작돼야

이미 고등 교육 연구에서는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 기준으로 성적이 아닌 분석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는 2020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 수업의 방향성 탐색’이라는 연구를 펴내며 고등 교육 기관에서의 학업 성취 기준으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전공 지식, 문제해결능력, 효과적으로 말하고 글 쓰는 능력, 공감 능력, 협동능력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역량을 꼽고 있다.

김 교수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에 걸맞은 인재상이 요구되고 교육내용의 변화도 불가피하게 되었다”면서, “이에 맞는 교수역량과 재학생들의 학습역량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수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변화는 탈경계로, 기존의 대학이 갖고 있던 학과의 경계를 넘어 경제학과 생태학, 여성학과 생물학처럼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던 학문을 융합해 탐구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의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지역적 한계가 무너지는 만큼 다양한 배경과 수요를 가진 학습자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에 맞추어 각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방식의 강의 과정이 생겨날 것”이라 예측했다. 또한 “비대면 학습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술도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를 수업에 접목하는 방식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며 고등 교육의 역할에 대한 언급도 덧붙였다.